BABY LINGUIST

조선대학교 음성학연구실 소식지 2017년 봄

실험실 소개

조선대학교 영문학과 내 음성학 연구실은 2016년 조선대에 부임한 고언숙 교수가 설립하여 박사후 연구원및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기의 아기들이 어떻게 소리를 인지하고 언어를 배우게 되는지 실험할 수 있는 설비 (고개회전 선호및 주시선호 검사)를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 아동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아동에게는 무료 언어발달 검사와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010-3982-8348; 062-230-6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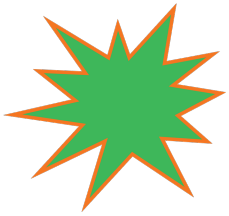
말을 못하는 아기에게 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물론입니다!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면 이미 발달 연령에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 아기는 만 5세에 이미 만 6세 아동만큼의 학습능력이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만 4세만큼의 학습능력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격차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벌어지게됩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미 두살된 아기들의 언어처리 능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들어도 어떤 아기들은 훨씬 빨리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어처리 능력이 아기가 듣는 어휘의 양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기에게 많은 주제의 풍부한 어휘를 제공할수록 아기는 언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것은 또 더 큰 어휘의 양과 학습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http://www.babyresearchcenter.nl/images/stories/procedures/hpf.jpg

아기가 말을 배울때 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어떤 역할을 할까?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가 단어를 배울때 "쿵쿵", "딩동", "꼬끼오" 같은 음성상징 단어들은 일반적인 단어들보다 배우기 쉬운 걸까요? 저희 연구실에서 녹음한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엄마들이 어린 아기들을 대할때는 큰 아기들을 대할때보다 이런 음성상징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연결된 경우 어휘 습득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러는 걸까요? 저희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14개월 혹은 28개월 된 아기들이 실험실 정면에 있는 TV 모니터에서 제시되는 그림과 말소리를 어떻게 짝을 맞추는지, 그리고 이것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래 두 그림 중 이 글을 읽으시는 어머니/아버지는 둘 중 어떤 그림이 "부바"같은가요? 또 어떤 그림이 "키피" 처럼 보이나요? 혹시 어머니/아버지께서 느끼는 것과 반대로 이름이 붙여져 있다면 다음에 다시 물어볼때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기는 두 그림 중 어떤 것이 "부바"라고 느낄까요? 저희가 그 반대라고 학습을 시킨다면 그래도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기가 주어지는 말소리를 듣고 두 그림 중 어떤 그림을 쳐다보는지를 아동의 시선을 추적하여 아동의 인지패턴을 파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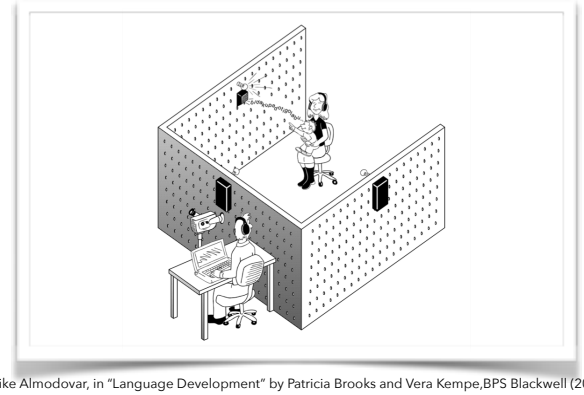
CHILD. LANGUAGE. LAB.

아기에게 티비나 비디오를 보여주면 외국어를 배울수 있을까?

아동언어 및 인지발달의 권위자인 미국 워싱턴대학교 언어병리학과 패트리샤 쿨(Patricia Kuhl) 교수는 미국의 9개월 아기들을 세가지 상황에서 중국어에 노출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원어민과의 상호작용, 한 그룹은 그것을 녹화한 비디오 시청, 다른 한 그룹은 그 녹화의 오디오만 듣게 했습니다. 총 열두차례의 세션을 마친 후, 아기들의 중국어 말소리 구분 능력을 테스트한 결과, 원어민과 상호작용했던 그룹만이 중국어 말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아기들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두 그룹은 중국어 말소리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두 그룹 모두 중국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미국 아기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기들한테 영어비디오 보여줄 필요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아기의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아기가 말을 하기 전에도 아기는 의사소통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상호 관심사에 대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그리고 자기 차례에 의사표현을 하며 상호작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기에게 미소를 짓거나 말하기, 아기와 함께 놀아주기, 책 읽어주는 것을 통해 아기의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의사소통능력은 이후 학교생활에서 성공적인 교우관계와 학업성취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ike Almodovar, in "Language Development" by Patricia Brooks and Vera Kempe,BPS Blackwell (2012)

한국아기는 미국엄마와 한국엄마의 목소리를 똑같이 좋아할까?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기에게 어른들은 흔히 또박또박 발음하고 천천히, 짧게 말하며 단순한 문장구조와 과장된 표정 및 몸짓을 사용합니다. 이를 아동지향어라고 합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른들 간 사용하는 말은 성인지향어라고 합니다. 영어권을 중심으로 한 서양에서는 아기들이 아동지향어 듣는 것을 성인지향어를 듣는 것보다 좋아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알려졌습니다. 또한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단어를 아동지향어 억양으로 학습시킬 경우 성인 지향어로 학습시킬때보다 더 잘 배우는 것을 알게 되어, 아동지향어가 언어발달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어를 배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지향어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한국 아동이 영어권 엄마의 아동지향어와 한국엄마의 아동지향어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나이에 따라 선호도가 변하는지를 6-9개월, 12-15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특히 이 연구는 전세계 70여개의 대학들과 함께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어 실험은 타국의 실험실과 동일한 실험자극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조선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기는 몇마디의 말을 들었을까?

아기의 언어환경이 아기의 언어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기가 하루에 듣는 말의 갯수, 그 중 엄마가 한 말의 갯수, 아기가 스스로 말한 옹알이의 갯수, 언니가 한 말의 갯수, 아빠가 한 말의 갯수, 티비를 본 시간 등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기의 언어발달 상황과 상관 관계가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아기들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이 실험은 국내 최초로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아기의 언어환경을 분석하여 언어발달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실험으로 2017년 10월 경 백 일 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참여를 기다립니다.